

# 역세권내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행태분석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이주희\* · 박진아\*\*

\*(주)MAP한터인종합건축사사무소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 Analysis of User Behavior for the Revitalization of Small Parks near Stations by the Location Types in Influential Subway Area

Lee, Joo-Hee\* · Park, Jin-A\*\*

\*MAP HANTERIN Architects & Engineers Co., Ltd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 government is planning to link a small park with the soon to be ready subway line 9 as a part of Seoul's policy, 'The standard or plan for making a water-friendly space by water use' (2007). However, the specified concepts and instructions of the small parks need further work. Therefore, the policy is expected to expand to neighboring small parks near the subway station, but these are not supported by research or data which suggests the needs or actual user behavior and utilization of small parks. Our country added the specified concept of small parks and theme parks to the classification of urban parks in the Urban Park Act Revision (2005.3.31), but the concept of small parks is not clearly settled in the law in the scopes of its function, scale, promotion nor particularly defined plans for small park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as small park near a subway sta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re region and users vary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station and region. In the 'directions for concrete standards under the types of urban parks and green zones' (2007.2) the types of small parks are classified by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ser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s the subject of neighboring small parks near subway stations as the neighborhood and small urban parks according to the Urban Park Act. The study was paralleled with observation and questionnaires on the analysis of the neighborhood and small urban parks. The actual conditions of park utilization and user behavioral characteristics were deducted by observation, while the questionnaire determined actual user utilization, importance and satisfaction level as well as the small park environment. This study largely focused on three aspects: park facility, design of this sentence isn't even complete. The second aspect isn't finished and the third isn't here.

**Key Words:** User Behavioral Characteristics, Urban Small Open Space, Analysis of Location Type

---

**Corresponding author:** Jin-A Park, Graduate School of Urban Studies,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Tel.: 82-2-2220-0277, E-mail: paran42@hanyang.ac.kr

## 국문초록

2005년 3월 31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시공원 분류체계에서 소공원과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으나, 기능, 규모, 유치거리가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조성 과정상의 확실한 설계 치침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법제화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7.2)에서도 소공원의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균린·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공원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은 설치위치 및 지역의 성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에서의 설치위치 및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유형화를 위한 분석기준은 각각의 공원은 인접한 역의 성격과 지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로서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공원유형분류를 한다. 소공원 주변 용도배분비율과 기준의 소공원 설치 당시 공공에서의 설치목적을 각 구청의 담당자의 문의를 통하여 파악하고, 이용자의 거주특성의 경우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거주지와 거주동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의 주 이용자의 거주특성을 파악하여 최종 대상지 균린소공원 3개소, 도심소공원 3개소를 선정하였다. 둘째, 각 유형별로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행하여 유형별 대상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특성의 차이점과, 어떤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관찰조사와 설문분석에 따른 결과와 관리 공무원과 공원설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계획시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계적 측면과 이용행태적 측면,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주제어: 이용실태, 소규모 오픈스페이스, 유형별 분석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경제성장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부 지역, 특히 인구밀집 주거 지역은 통상적인 기준에서의 규모로 공원설치에는 여러 제약 조건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오히려 토지이용의 효용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역세권<sup>1)</sup>내 소규모 공원을 체계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양적 충족보다 질적인 효과를 향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도시공원의 적합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대상지의 규모, 위치, 현재의 실태 즉 점유상황, 지장물 등, 접근성, 주변 공원현황 등이다. 이중에서 주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대상지의 위치로, 도시소공원의 적합지는 우선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원이용자 집단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위치할 때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업·업무지역에 위치한 소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므로 인근역 등의 거점지역이나 번화가 등의 중심지 주요 시설 가까이에 위치하여야 하며, 주거지의 소공원은 주거 밀도가 높은 곳에 위치할 때 공원이용

률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박문호, 1996). 이처럼 도시공원의 적합지는 다양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접근성과 이용자 수 그리고 공원의 활용도 측면에서 효율성이 뛰어난 역세권내 소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이용자 측면에서의 행태분석을 통한 역세권내 공원입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아울러 지속적인 공원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진행되어온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계획'을 통하여 향후 건설될 지하철 9호선과 연계시켜 소공원을 계획, 조성할 전망이지만<sup>2)</sup>, 효용성이 뛰어난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의 구체적인 이용실태 및 필요성, 활성화에 대한 연구 및 자료는 사실상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개정(2005년 3월 31일)으로 도시공원의 분류체계에서 소공원과 주제공원을 세분화하여 추가하였다. 그러나 기능, 규모 및 유치거리가 법규로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조성 과정상의 확실한 설계 치침도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최근 법제화된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2007.2)에서도 소공원의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으나, 유형별 공원의 지정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역세권내 위치한 소공원은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설치위치 및 지역의 성

격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유형에서의 설치위치 및 지역적 특징을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유형별 특성에 따른 공원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역세권과 연계된 역 인접 소공원계획은 즉, 지하철역 출구에 인접되어 있거나 역사 근처 인접되어 있는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양적 중대뿐 아니라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공원분포의 불균형을 해결하고, 도시경관의 향상, 다양한 형태의 공원조성 등 도시공원의 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소공원에 대한 관심과 이용자를 위한 고려 및 계획을 확충하게 된 1996년을 기점으로 1997년 이후 기 조성되어 역세권 내 지하철역에 인접 조성된 소공원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sup>3)</sup>. 각각의 공원은 인접한 역의 성격과 지역의 성격이 다르므로 첫째,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에 따른 유형분류로서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분류체계에 따라 공원 유형분류를 한다. 둘째, 각 유형별로 관찰조사를 통하여 이용자들의 이용행태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유형별 대상지의 이용실태 및 이용특성이 유형별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측면에서의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용측면에서의 이용실태 및 공원시설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 환경적 측면의 만족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다. 셋째, 관찰조사와 설문에 따른 결과와 관리 공무원과 공원설계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종합하여 추후 계획 시 고려하여야 할 점으로 공원이용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설 및 설계의 개선과 이용행태에 대한 고려, 관리 운영 개선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관찰 조사는 문현조사와 현장조사로 임은 물리적 환경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기 이전 대상지의 물리적 환경과 이용자들의 이용실태와 이용행태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2007년 4월 26일~5월 15일까지 3명의 조사원이 총 20일간 대상지별로 주중 2회 주말 1회로 조사하였으며, 시간대는 오전 8:00~오후 1:00, 오후 3:00~6:00에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예비조사를 거쳤으며, 본 조사는 5월 11일부터 5월 20일 중 맑은 날씨를 보인 8일간 진행되었다. 주중 2회 주말 1회로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회수율은 100%이다. 인터뷰조사는 6개 대상지 중 1개 대상지를 설계한 업체 관계자 1명과 인터뷰하였으며, 각 구청의 물을 이용한 친수 공간 담당공무원들 총 2명을 대상으로 하여 향후 역세권내 소공원의 조성방향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하였다. 자료 분석은 통계 처리를 위하여 통계프로그램인 SPSS 10.0을 사용하여 조사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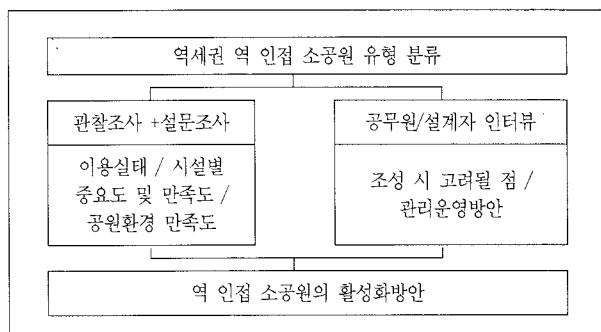


그림 1. 연구의 흐름

본의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신뢰성 분석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각 유형별 빈도 분석, 이용실태 파악을 위하여 각 유형별 빈도분석, 이용실태에 관한 항목과 거주지별 이용행태 차이검증을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독립성 검증, 유형별 공원 시설의 중요도 및 만족도 분석을 위하여 평균비교를 통한 중요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형별 공원 환경의 만족도 분석과 각 대상지별 공원 환경측면에 대한 분석을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 II. 기존연구 검토

소공원에 관한 연구는 도심에 조성된 소공원을 대상으로 하여 입지 및 조성방안과 유형화에 관한 연구가 있고, 역세권과 관계된 소공원에 관한 연구는 역 주변 소공원 입지의 필요성을 제안한 연구로 대중교통중심의 개발(TOD: Transit-Oriented Development)<sup>4)</sup>과 연계된 소공원 입지 필요성을 다룬 연구가 있다.

소공원의 입지 및 조성방안에 관련된 실증적인 연구 중에서 박문호 등(1996)은 도시공원의 관련법 제정과 도시 소공원의 확보와 조성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소공원의 유형을 위치별(주거지형, 도심지형), 조성형태별(광장형, 녹지형), 조성주체별(공공, 공개)로 개념적 분류를 하였다. 김성한(1998)은 성남시를 대상으로 소공원계획을 위한 적합지 선정을 목적으로 공원이용 의식조사를 통해 유치거리, 면적, 토지이용, 접도성, 지형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유형화 하였다. 또한, 박상진(2005)는 물리적 환경, 공간구성요소, 이용의식을 분석의 틀로 하여 성남시의 특성을 고려한 기본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입지 및 조성방안, 유형화는 최근 법제상으로 유형화 개념이 정립된 현재의 기준과 선행연구에서의 유형화 세부 기준을 가지고 이용자측면에서의 이용실태를 평가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공원 뿐이 아닌 공원 이용활성화에 관한 연구로도 살펴 볼 수 있는데, Jacobs(1969)와 Hester(1975)는 근린공원 이용자의 파괴적 행위가 이용률을 감소시키는 주요 요소임을 밝히고, 이러한 이용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

로 안전과 유지관리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함을 제시하는 등 공원 이용과 비이용에 대한 행태적 측면과 공원이용 활성화에 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있다<sup>5)</sup>. 또한 역 주변 소공원 입지의 필요성을 제안한 임희지(2002) 외 백경무(2004)는 역세권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역 주변 편익시설의 제공과 오픈스페이스와 관련된 광장의 설치를 통하여 보행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증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지가가 높은 역세권의 경우 소공원의 설치를 통한 환경개선의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역 주변의 공간이 아니더라도 T. Nirarta Samadhi(2006)은 도시의 오픈스페이스가 가지는 높은 가치에 대하여 강조하며 도시 오픈스페이스의 공급방향으로써 종교시설 부지를 활용하자는 주제로 기존의 도시의 공간을 활용한 소규모의 오픈스페이스가 가지는 의미를 정의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도심부 지역, 특히 인구밀집 주거지역은 통상적인 기준에서의 규모로 공원 설치에는 여러 제약조건과 불합리한 요소들이 많이 있으므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의미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또한, 서구에서는 '뉴어바니즘'의 계획이론에 따라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역 주변환경 개선을 통한 활성화 대안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안건혁, 온영태 역, 2000). S.S.Y. Lau(2005)는 복합적이고 집약적인 토지이용을 이루고 있는 홍콩의 역세권 사례지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의 특성과 디자인 접근 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복합적인 디자인을 추구함으로써 역 주변 환경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즉, 정책적 측면에서의 역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한 결론적 제안이나 복합적 디자인을 추구해야 한다는 결론에 그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역 인접 소공원의 경우, 공원 설치 시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계획되고 있으나, 이용자 및 관찰자 측면에서의 분석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역세권 주변의 환경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현재 계획되고 있는 역 인접 소공원이라는 공원유형별 이용자들의 행태분석을 통하여 역 주변의 공원계획이 공원의 주변 환경에 대한 개선효과뿐 아니라 토지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의 공원의 실질적인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III. 대상지 선정 및 유형화

#### 1. 대상지 선정

지하철 역세권내 역에 인접하는 소공원의 범위 설정기준은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인접영향권 200m, 직접영향권 500m, 간접영향권 1km로 설정하였다.

지하철 역세권의 범위는 역의 영향권을 중심으로 하여 크게 역 연접권과 역 영향권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역 영향권은 다

시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세분할 수 있다(임희지, 2002, p.9). 그러나 이러한 권역구분방법은 교통이나 지역계획에서 필요한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권역설정방법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보행권내의 접근성, 이용가능, 활동의 집중도 등에 의거하여 역의 영향권을 세분하였다. 즉, 인접 영향권 즉 역세력권, 직접 영향권, 간접 영향권 즉 역주변 생활권으로 나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하철 1~8호선을 중심으로 역세권 직접 영향권 즉 역보행권에 해당되는 역반경 500m 이내의 소공원을 살펴보면 2006년 1월까지 총 137개소이다. 이중 역세권의 인접 영향권 즉 역세력권의 역 반경 200m내의 소공원 17개소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행하여 지하철역 출구에 인접되어 있거나 역사 근처 인접되어 있는 소공원은 8개소로 나타났다. 즉, 사당역 건설회관 앞 수경시설, 연신내역 물빛공원, 여의나루역 수경시설, 응암역 주변녹지, 사가정역 수경시설, 구파발역 은하인공폭포공원, 장승배기역 수경시설, 대방역 주변녹지이다. 이중 응암역과 대방역은 복합적인 시설배치 및 규모측면에서 이용행태 및 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를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어 제하였다. 따라서 복합적 시설 및 다양한 시설배치가 되어 있는 곳 6개소를 본 연구의 최종대상지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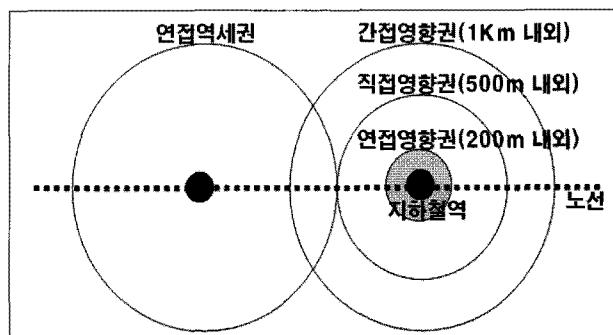


그림 2. 지하철 역세권의 공간구조

표 1. 지하철 역세권 범위에 대한 기준 연구

기준 연구	범위
서울 200 도시개발 장기구상 중기 계획(1980)	- 1차 역세권: 500m - 2차 역세권: 500~1,000m
서울시 도시구조개편을 위한 다크 도시개발 연구(1984)	- 1차 역세권: 500m - 2차 역세권: 500~1,000m
서울시 도시기본계획(1990)	- 반경 1km
지하철 역세권 기본구상(1992)	- 역사인접권: 200m내외 - 역세권: 200~800m
서울시도시기본계획(1997)	- 반경 500m
상세계획지침(1997)	- 반경 500m

자료: 박문호외 2인,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6, 필자 제작성

표 2. 역 인접 소공원의 시설

공원명	시설
구파벌역 은하인공폭포공원	은하폭포, 산성폭포, 야외공연장, 안개분수, 화장실, 간이매점
사가정역 수경시설	벽천(강화유리 음각변천), 분수, 앉음벽, 수목보호겸용의자
장승배기역 수경시설	화계, 전통담장, 장식벽화, 장승, 분수, 평의자, 안전휀스
옹암역 주변녹지	평의자, 수목보호겸 용의자, 훈스
사당역 친수공간	파고라, 벽천, 등의자, 평의자, 계단, 수목보호대, 불라드
연신내 물빛공원	일출벽천, 분수, 파발가벽, 석교, 산조형물, 데크, 연식의자, 통돌벤치, 디딤석, 장대석, 불라드, 안내판, 잔디보호책
대방역 주변 녹지	파고라, 등의자, 평의자, 훈스, 불라드, 안내판
여의나루역 수경시설	장식벽천가벽, 유리벽천, POND, 통석조명, 앉음석, 거북조형분수, 물고기 조형분수, 훈스

표 3. 역 인접 소공원의 시설 유·무

대상지 시설	구파발	사가정	장승 배기	옹암	사당	연신내	대방	여의 나루
벤치 및 휴게시설	0	0	0	0	0	0	0	0
조명등	0	0	0	-	0	0	0	0
수경시설	0	0	0	-	0	0	-	0
수목	0	0	0	0	0	0	-	0
장식벽천	0	0	0	-	0	0	-	0
정자/ 파고라	0	0	-	-	0	-	0	-
공연장	0	-	-	-	-	0	-	-
기타	0	-	-	-	-	0	-	-

## 2. 유형화

### 1) 유형화를 위한 분석 방법

2007년 2월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도시소공원의 유형은 소공원의 설치 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크게 분류해 놓았다<sup>6)</sup>. 하지만 법으로 소공원이라고 지정 명칭했을 뿐 각각의 소공원에 대한 유형별 분류에서의 지정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역세권 내 소공원의 경우, 기본적으로 역세권과 관련되어진 소공원이지만 역세권은 그 주변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역의 성격과 지역의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정의에서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이 따른 유형분류의 틀로서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유형화를 위한 분석기준은 표 2와 같이 법제상에서의 개념인 설치위치, 이용목적, 이용자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의

분석기준을 사용하였다. 첫째, 소공원의 설치 위치 즉 주변 환경적인 여건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변용도의 배분 비율을 살펴보았다<sup>7)</sup>. 둘째, 소공원의 이용목적은 기존의 소공원 설치 당시 공공에서의 설치목적을 고려하고자 각 구청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셋째, 이용자 거주지역 특성은 공원이용자를 대상으로 주중 2회 주말 1회로 설문을 행하여 거주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 주 이용자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 2) 유형화

분석 결과 첫째, 용도배분비율은 사가정역, 장승배기역 주변에서 주거 비율이 각각 전체의 89.5%, 88.67%로 높게 분석되었고, 사당역, 연신내역, 여의나루역 주변은 상업비율이 각각 전체의 84.7%, 60.92%, 88.57%로 상업비율이 높게 분석되었다<sup>8)</sup>. 둘째, 설치 목적 분석 결과, 사당, 연신내, 여의나루 소공원의 경우 도심소공원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구파발, 사가정, 장승배기 소공원은 균린소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셋째, 각 역세권내에 위치한 지하철 역 인접 소공원의 이용자 거주지역 특성의 경우는 5월 10일~25일중 비교적 밝은 날씨를 보인 5일간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주중 2회 주말 1회로 무작위 추출<sup>9)</sup>의 방식으로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거주지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각 공원의 주 이용자 거주특성을 파악하였다. 유치거리는 도시공원법의 균린분구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공원의 유치거리 250m내에 거주하는 이용자와 그 외 기타지역 거주자로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용도배분비율과 동일한 결과로 사당, 연신내, 여의나루 소공원이 도심소공원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구파발, 사가정, 장승배기 소공원은 균린소공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서울시 역세권 내 위치한 지하철 역 인접 소공원 6개소 중 균린소공원은 3개소, 도심소공원은 3개소로 분류되었다. 법제상 분류체계에 따라 균린소공원은 다시 도시형과 전원형으로, 도심 소공원은 광장형과 녹지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의 최종대상지는 이중 균린 소공원 중 도시형 3개소, 도심 소공원중 광장형 2개소, 녹지형 1개소로 분류되어졌다.

표 4. 도시 소공원의 법제상 유형화 개념

유형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설치 위치	근린생활권 내 주거지역	고밀도의 토지이용이 이루어지는 도심지역
이용 목적	주민들의 일상적인 휴식 및 어린이들의 놀이를 위한 공간	불특정 다수의 이용을 목적
이용자 특성	근린생활권 안에 거주하는 주민	거주자 이외 불특정 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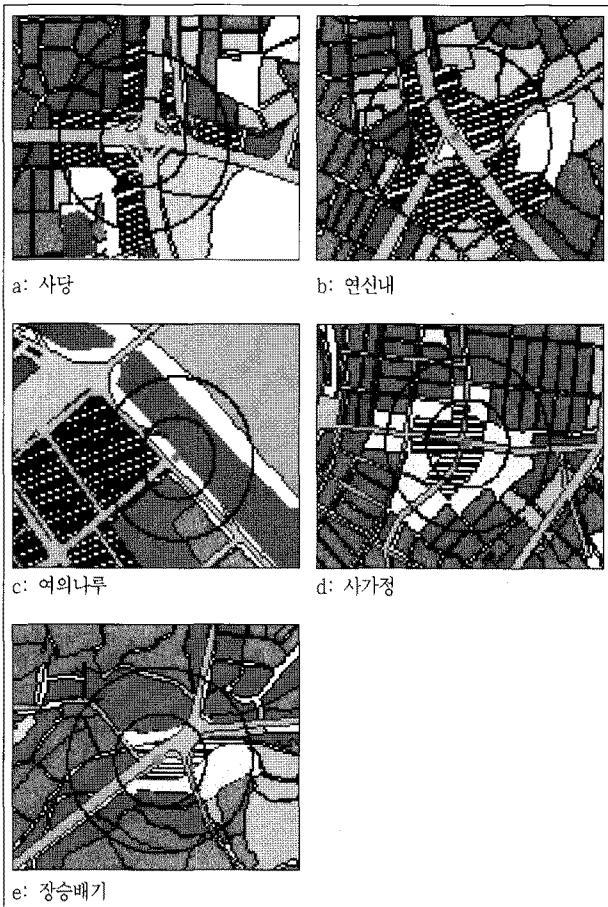


그림 3. 대상지별 용도배분

범례:

- 준주거지역,
- 2종 12층 일반주거지역,
- 3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지역,
- Road,

1종 일반주거지역,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공원,

하천

#### IV. 유형별 이용행태 특성 분석

##### 1. 관찰에 의한 이용행태 특성

관찰 기록된 역 인접 소공원의 이용행위는 휴식 및 산책, 운동, 사진촬영, 화장실 이용, 통과목적, 아이 돌보기, 피크닉, 관람 및 구경, 약속장소(만남 및 대화), 지하철 이용 전·후 잠시 쉬기 위해 등 다양한 행위가 나타났다. 공원에서 관찰된 가장 많은 이용행위는 전체적으로 약속장소 이용 목적으로 268명 (44.8%), 휴식 및 산책은 116명(19.4%) 순으로 나타났다.

##### 2. 설문에 의한 이용행태 특성

###### 1)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및 이용실태 분석

성별에 있어서 여성의 비율이 근린소공원 56.3%, 도심소공원 53.5%로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용연령은 근린소공원은 10대

표 5. 대상지별 설치목적

목적 대상지	주된 대상자	설치 목적
사당	· 동작구청 의견: 지하철 이용자	·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
연신내	· 서울시 의견: 지하철 이용자 · 은평구청 의견: 주변상가 이용자	· 지하철 이용자들의 편의 및 지역성을 고려한(파발체) 공간
구파발	· 서울시 의견: 등산객, 주변 거주주민 · 은평구청 의견: 주변주거지주민	· 통일로 주변의 상장공간으로 통일로 가로경관 향상에 페직한 도시환경을 조성의 목적
여의나루	· 서울시 의견: 지하철이용자 및 한강시민공원이용자 · 영등포구청 의견: 지하철이용자 한강시민공원이용자	·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물을 이용한 수경공원조성 · 불특정 다수의 휴식 공간 제공 목적
사가정	· 중랑구청 의견: 지하철 이용자 주변주거지주민	· 가로경관 향상에 페직한 도시 환경을 조성의 목적과 지하철 역과의 조화를 목적
장승배기	· 동작구청 의견: 지하철 이용자, 주변 주거지주민	· 구 자체적으로 역 조성시 잔여 공간의 활용목적으로 설치 · 지역성을 고려한(장승제) 주민화합의 장으로의 활용 목적

표 6. 이용자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분석

(단위: 명)

항목 대상지	유치거리내 거주자			기타 지역 거주자		
	주중	주말	소계	주중	주말	소계
사당	10 (45)	12 (55)	22 (100)	35 (63)	21 (38)	56 (100)
연신내	12 (43)	16 (57)	28 (100)	26 (45)	32 (55)	58 (100)
구파발	37 (63)	22 (37)	59 (100)	19 (46)	22 (54)	41 (100)
여의나루	11 (58)	8 (42)	19 (100)	19 (28)	49 (72)	68 (100)
사가정	23 (68)	11 (32)	34 (100)	11 (69)	5 (31)	16 (100)
장승배기	6 (40)	9 (60)	15 (100)	4 (13)	27 (87)	31 (100)

표 7. 대상지별 소공원의 유형

공원명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도시형	전원형	광장형	녹지형
사당역 사거리 건설회관 앞 수경시설	-	-	○	-
연신내 물빛공원	-	-	○	-
구파발역 은하인공폭포공원	○	-	-	-
여의나루역 수경시설	-	-	-	○
사가정역 수경시설	○	-	-	-
장승배기역 수경시설	○	-	-	-

표 8. 대상지 개요

유형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도시		광장형		녹지형	
대상지	구파발	사가정	장승배기	사당	연선내	여의나루
						
규모	1,363m <sup>2</sup>	800m <sup>2</sup>	240m <sup>2</sup>	1,460m <sup>2</sup>	78.1m <sup>2</sup>	430m <sup>2</sup>
조성년도	1997.1	2005.8	2004.4	1997.8	2002.4	2002.4
설계방향	랜드마크적 수경공간	랜드마크적 수경공간				
공간구성	공개 공지형	공개 공지형				
시설물	시설물: 은하폭포, 산성폭포, 아외공연무대 수경시설: 안개분수와 1식	시설물: 파고라와 1식 수경시설: 벽천와 1식	시설물: 화개와 10종 수경시설: 분수 등 1식 기타: 장식벽화 1식	시설물: 파고라와 1식 수경시설: 벽천와 1식	시설물: 벽천와 12종 수경시설: 안개분수 등 1식	시설물: 장식벽천 가벽의 6종 1식 수경시설: 거북조형분수 외 1종 2개소
바닥포장	화강석, 판석포장	석재타일포장, 화강석판석포장	점토벽돌포장	석재타일포장, 화강석판석포장	점토벽돌포장, 화강석포장	화강석판석포장
수목/식재	교목: 소나무와 11종 816주 관목: 회양목와 1종 1,650주	교목: 섬잣나무와 10종 49주 관목: 눈주목와 5종 3,800주	교목: 조형소나무와 5종 69주 관목: 동근주목와 10종 731주 지피류: 맥문동 외 4종 1,668본	교목: 소나무와 7종 119주 관목: 수수꽃다리와 6종 1,267주 지피류: 맥문동 외 3종 3,860본	교목: 소나무와 5종 58주 관목: 산칠쭉 외 5종 7,050주 지피류: 맥문동 외 2종 1,500본	-

26%, 20대 16.6%, 60대 17.9%, 도심소공원은 10대 21.7%와 20대 33.1%가 주로 이용하며, 직업에 있어서 균린·도심 소공원 모두 학생의 비율이 24.5%,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자의 거주 지역은 균린소공원은 유치거리내 거주자가 55.6%, 도심소공원은 기타 지역 거주자가 68.8%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용요일에 있어서 균린소공원은 주로 주말(45.7%)과 주중/주말에 무관하게 이용하는 이용자(43%)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심소공원은 균린소공원에 비해 주로 주중(31.2%)에 이용하며, 이용빈도는 균린소공원은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32.5%)이나 매일(19.9%)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심소공원은 한 달에 1~2회(22.3%)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에 있어서 균린소공원은 오전시간대(14.6%)보다 오후시간대(54.9%)에 이용하며, 도심소공원은 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이용(3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목적에 있어서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약속장소, 친구 기다림(32.5%, 29.9%)과 휴식 및 산책(15.2%, 15.9%)이 가장 많았는데, 이외 균린소공원은 친구/이웃과의 놀이(11.9%)로 이용되며, 도심소공원은 통행복적(9.6%)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으로의 도달시간은 균린소공원은 5~10분(50.3%)이 소요되며, 도심소공원은 10~30분(61.2%)으로 도달시간이 다양한 분포로 나타났다. 공원의 필요시설은 균린소공원은 휴게시설(31.1%)>조명등(20.5%)>

수목(19.2%)>분수 및 수경시설(9.3%)>음수전(7.3%)>화장실(6.6%), 도심소공원은 휴게시설(40.1%)>화장실(28%)>수목(8.3%)>분수 수경시설(7%)>조명등(7.6%)>음수전(5.7%) 순으로 나타났다. 공원이용의 문제점은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그들의 부족(39.7%, 48.4%)과 지저분한 환경(21.2%, 12.7%)으로 분석되었고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나타났다.

## 2) 거주지역 특성에 따른 이용실태 분석

거주지 특성에 따른 이용빈도는 도심소공원에 비해 균린소공원의 경우 매일 이용빈도가 높게 조사되었으며 예상한 바와 같이 기타 지역 거주자(5.9%)보다 유치거리내 거주자(22.5%) 비율이 높게 나왔다. 따라서 균린소공원은 주거지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져야 할 것이며, 도심소공원은 이용권측면에서 균린소공원에 비해 근거리가 아닌 원거리에서의 다양한 이용계층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이용빈도와 이용목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원시설과 계획이 필요하다고 본다. 도심소공원의 경우 특히, 역 주변의 결절점에 위치하여 지하철역 주변의 균린생활권 이용자 및 상업, 업무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타 지역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여타 소공원에 비해 이용권이 비교적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9. 관찰기록에 의한 이용행태 특성 (단위: 빈도(%))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전체
	구파발	사가정	장승 배기	사당	연신내	여의 나루	
휴식/ 산책	19 (19.6)	3 (4.2)	30 (36.1)	15 (16.7)	31 (20.3)	18 (17.5)	116 (19.4)
아이 돌보기	8 (8.2)	1 (1.4)	8 (9.7)	11 (12.2)	15 (5.2)	8 (7.8)	51 (8.5)
페크닉	6 (6.2)	-	-	-	-	8 (7.8)	14 (2.4)
친구이웃과 놀이	2 (2.1)	2 (2.8)	8 (9.6)	-	6 (3.9)	17 (16.5)	35 (5.9)
관람구경	2 (2.1)	2 (2.8)	-	-	3 (2.0)	10 (9.7)	17 (2.8)
사진촬영	2 (2.1)	-	2 (2.4)	-	-	10 (9.7)	6 (1.0)
통행목적	9 (9.3)	4 (5.6)	12 (14.5)	9 (10)	15 (9.8)	2 (1.9)	43 (7.2)
약속장소	40 (41.2)	57 (79.2)	26 (31.3)	32 (35.6)	77 (50.3)	36 (35)	268 (44.8)
지하철이용 전후 잠시 쉬기	9 (9.3)	3 (4.2)	5 (6)	23 (25.6)	6 (3.9)	2 (1.9)	48 (8)
합계	97 (100)	72 (100)	83 (100)	90 (100)	153 (100)	103 (100)	598 (100)

표 10. 표본 집단 및 설문 부수 (단위: 빈도(%))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총
	구파발	사가정	장승 배기	사당	연신내	여의 나루	
주중	27 (54.0)	30 (57.7)	27 (55.1)	24 (45.3)	26 (49.1)	23 (45.1)	157 (51.0)
주말	23 (46.0)	22 (42.3)	22 (44.9)	29 (54.7)	27 (50.9)	28 (54.9)	151 (49.0)
합계	50 (100)	52 (100)	49 (100)	53 (100)	53 (100)	51 (100)	308 (100)

### 3) 지하철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이용실태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이용자의 이용목적을 파악함과 동시에 지하철 이용자들의 소공원에 대한 유형별 이용실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즉, 지하철 이용자는 근린·도심 소공원 모두 만남/약속대화장소(37.5%, 26.3%)의 목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근린소공원의 경우 친구, 이웃과의 놀이(25%), 휴식/산책(10%), 가족과의 레크리에이션(10%)을 위해 이용하며, 도심소공원의 경우는 통행목적(18.8%), 지하철을 이용하다 잠시 쉬기 위해(15%) 이용한다는 대답이 많이 나왔다. 이는 근린소공원의 경우,

표 11. 유형별 이용실태 (단위: 빈도(%))

항목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전체
		주중	60(19.5)	
이용 요일	주말	69(45.7)	55(35.0)	124(40.3)
	공휴일	6 (4.0)	20(12.7)	26 (8.4)
	요일 관계없이	65(43.0)	33(21.0)	98(31.8)
	매일	30(19.9)	8 (5.1)	38(12.3)
이용 빈도	일 주일에 3~4번	17(11.3)	30(19.1)	47(15.3)
	일 주일에 1번	49(32.5)	33(21.0)	82(26.6)
	한 달에 1~2번	23(15.2)	35(22.3)	58(18.8)
	3개월의 한번	10 (6.6)	16(10.2)	26 (8.4)
	6개월의 1번	5 (3.3)	4 (2.5)	9 (2.9)
	1년에 1번	2 (1.3)	1 (0.6)	3 (1.0)
	새벽 6시~오전 9시	13 (8.6)	2 (1.3)	15 (4.9)
이용 시간	오전 9시~오후 12시	9 (6.0)	11(7.0)	20 (6.5)
	오후 12시~오후 3시	36(23.8)	22(14.0)	58(18.8)
	오후 3시~6시	47(31.1)	45(28.7)	92(29.9)
	저녁 6시~밤9시	12 (7.9)	17(10.8)	29 (9.4)
	시간에 관계없이	34(22.5)	60(38.2)	94(30.5)
이용 목적	휴식/산책	23(15.2)	25(15.9)	48(15.6)
	만남/약속대화장소	49(32.5)	47(29.9)	96(31.2)
	가족과 레크리에이션	13 (8.6)	14 (8.9)	27 (8.8)
	친구, 이웃과의 놀이	18(11.9)	9 (5.7)	27 (8.8)
	지하철을 이용시 휴식	16(10.6)	14 (8.9)	30 (9.7)
	통행목적	10 (6.6)	15 (9.6)	25 (8.1)
	관람, 구경	2 (1.3)	2 (1.3)	4 (1.3)
공원으로의 도달 시간	점심시간이용 휴식	2 (1.3)	1 (0.6)	3 (1.0)
	사진촬영	2 (1.3)	2 (1.3)	4 (1.3)
	5분	31(20.5)	13 (8.3)	44(14.3)
	10분	45(29.8)	32(20.4)	77(25.0)
	20분	23(15.2)	32(20.4)	55(17.9)
좀 더 필요한 시설	30분	24(15.9)	32(20.4)	56(18.2)
	40분	11 (7.3)	19(12.1)	30 (9.7)
	50분	4 (2.6)	9 (5.7)	13 (4.2)
	60분	6 (4.0)	10 (6.4)	16 (5.2)
	1시간 이상	7 (4.6)	10 (6.4)	17 (5.5)
공원 이용의 문제점	수목	29(19.2)	13 (8.3)	42(13.6)
	휴게시설	47(31.1)	63(40.1)	110(35.7)
	포장시설	5 (3.3)	3 (1.9)	8 (2.6)
	조명등	31(20.5)	12 (7.6)	43(12.1)
	분수 및 수경시설	14 (9.3)	11 (7.0)	25 (8.1)
	장식벽	4 (2.6)	1 (0.6)	5 (1.6)
	화장실	10 (6.6)	44(28.0)	55(17.4)
기타	음수전	11 (7.3)	9 (5.7)	20 (6.5)
	잘 모르겠다	-	1 (0.6)	1 (0.3)
	시설의 부족	16(10.6)	19(12.1)	35(11.4)
	시설 훼손	9 (6.0)	11 (7.0)	20 (6.5)
	불량배로부터 위협	12 (7.9)	5 (3.2)	17 (5.5)
기타	지자분합	32(21.2)	20(12.7)	52(16.9)
	시끄러움	12 (7.9)	12 (7.6)	24 (7.8)
	그늘의 부족	60(39.7)	76(48.4)	136(44.2)
	없다	8 (5.3)	12 (7.6)	20 (6.5)
	기타	2 (1.3)	2 (1.3)	4 (1.3)

공원 자체가 이용자들에게는 목적성을 가지는 반면 도심소공원의 경우, 공원의 이용목적보다는 통행에 부가되는 이차적인 장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나타내 준다. 이용교통수단 분석에서도 같은 해석이 적용될 수 있는데, 균린소공원의 경우 지하철 이용을 통한 공원의 접근보다는 기타 교통수단 즉, 도보나 버스를 이용하며, 도심소공원의 경우 지하철 이용을 통한 공원 이용이 높게 분석되었다. 따라서 도심소공원에서는 지하철을 이용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를 위한 편의성 제공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 4) 시설별 중요도 및 만족도

공원시설 선호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지역성이 반영된 시설에 특히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균린소공원인 장승배기역은 장승 및 전통담장, 도심소공원인 연신내역은 공원에서 조성된 패밀리화, 여의나루역은 한강 생태계를 모티브로 한 벽화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선호하는 시설로는 균린·도심 소공원 모두 장식벽천 및 분수 및 수경시설을 선호하였는데, 이는 지하철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이용하여 벽천 및 분수를 가동하여 수경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아이디어를 통하여 공원의 디자인과 기능성을 접목시켜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높인 좋은 사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설별 중요도는 균린소공원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데 특히 수목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고, 도심소공원의 경우는 휴게시설, 정자/파고라, 분수 및 수경시설>정자/파고라>조명등 순으로 만족하며, 만족하지 않는 시설은 장식벽천>휴게시설>수목>포장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도심소공원의 경우는 정자/파고라>분수 및 수경시설>조명등>휴게시설 순으로 만족하며, 만족하지 않는 시설로는 수목>장식벽

표 12. 거주지에 따른 접근수단 및 이용빈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유치거리 내 거주	기타 지역	유치거리 내 거주	기타 지역
접근 수단	지하철 이용	21(25.0)	19(28.4)	34(69.4)	76(70.4)
	기타	63(75.0)	48(71.6)	15(30.6)	32(29.6)
이용 빈도	합계	84(100.0)	67(100.0)	49(100.0)	108(100.0)
	매일	18(22.5)	5 (5.9)	3 (7.1)	5 (5.9)
	일주일 3~4번	9(11.3)	17(20.0)	13(31.0)	17(20.0)
	일주일에 1번	27(33.8)	18(21.2)	15(35.7)	18(21.2)
	한달에 1~2번	17(21.3)	29(34.1)	6(14.3)	29(34.1)
	3개월~1년	11(11.3)	16(18.8)	5(11.9)	16(18.8)
합계		80(100.0)	85(100.0)	42(100.0)	85(100.0)

표 13. 지하철 이용자의 이용목적 (단위: 빈도(%))

항목	구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지하철이용	기타	지하철이용	기타
휴식/산책		4(10.0)	22(19.8)	12(15.0)	13(16.9)
만남/약속 대화장소		15(37.5)	34(30.6)	21(26.3)	26(33.8)
가족과 휴식		4(10.0)	15(13.5)	6 (7.5)	6 (7.8)
친구, 이웃과 놀이		10(25.0)	15(13.5)	6 (7.5)	3 (3.9)
지하철 이용시 휴식		3 (7.5)	13(11.7)	12(15.0)	5 (6.5)
통행목적		3 (7.5)	7 (6.3)	15(18.8)	11(14.3)
관람, 구경		0(0)	2 (1.8)	5 (6.3)	1 (1.3)
점심시간 휴식		1 (2.5)	1 (0.9)	1 (1.3)	12(15.6)
사진촬영		0(0)	2 (1.8)	2 (2.5)	0(0)
합계		40(100.0)	111(100.0)	80(100.0)	77(100.0)

표 14. 지하철 이용자와 기타 교통수단간의 유의률

카이제곱검정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t값	자유도	접근유의 확률(양쪽)	t값	자유도	접근유의 확률(양쪽)
0.283	149	0.778	0.225	155	0.822

천>포장시설 순으로 나타났다.

#### 5) 공원 환경적 측면에서의 만족도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의 만족도는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접근성(4.17, 4.00)은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다는 특성상 접근성 면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관리 상태(3.25, 3.32)와 주변 환경의 질(3.42, 3.38)적인 면에서도 만족하고 있었다. 소음 정도(2.44, 2.42)는 역세권 인접이라는 특성상 공원이 간선도로변에 위치함에 따라 소음에 대해서는 불만족으로 분석되었으며, 그

표 15. 유형별 시설의 중요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중요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t값	유의확률
수목		3.60(0.99)	2.99(0.95)	5.564	0.000
휴게시설		3.42(0.84)	3.29(0.96)	1.277	0.203
정자/파고라		3.05(0.78)	3.83(0.80)	-2.165	0.001
포장시설		3.09(1.01)	2.64(0.86)	4.152	0.000
조명등		3.04(1.05)	2.85(1.12)	0.503	0.134
분수 및 수경시설		3.22(0.91)	3.76(0.86)	-5.359	0.000
장식벽천		3.12(0.99)	2.76(0.89)	3.326	0.001

표 16. 유형별 시설의 만족도

(단위: 빈도(%))

항목	구분	만족도			
		근린소공원	도심소공원	t값	유의확률
수목		2.55(0.96)	2.94(0.94)	-3.631	0.000
휴게시설		2.95(1.06)	3.23(1.05)	-2.293	0.023
정자/파고라		3.25(0.79)	3.72(0.75)	-4.036	0.250
포장시설		2.52(0.80)	2.63(0.83)	-1.153	0.708
조명등		3.02(0.88)	3.50(0.77)	-5.141	0.000
분수 및 수경시설		3.93(0.81)	3.62(0.75)	3.501	0.001
장식벽천		2.99(0.88)	2.86(0.78)	1.407	0.646

표 17. 공원 환경적 측면에서의 만족도 분석

항목	구분	근린 소공원	도심 소공원	카이제곱 검정		
				t값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물리적 기능적	접근성	4.17(0.58)	4.00(0.95)	1.830	306	0.068
	소음정도	2.44(1.00)	2.42(0.72)	0.272	305	0.786
	그늘의 양	2.86(0.68)	2.64(0.92)	2.416	306	0.016
	공원면적	3.26(0.93)	2.71(1.19)	4.577	306	0.000
	관리상태	3.25(1.05)	3.32(0.98)	-0.633	306	0.527
	주변 환경의 질	3.42(0.90)	3.38(0.92)	0.339	306	0.735
사회적 심리적	공간의 혼잡성	3.32(0.79)	2.83(0.83)	5.275	306	0.000
	대화 장소로의 적합성	3.48(0.87)	3.13(1.03)	3.208	306	0.001
	사색장소로의 적합성	2.72(0.92)	2.89(0.85)	-1.698	305	0.091
	휴식장소로의 적합성	3.12(1.00)	3.93(0.54)	-8.848	305	0.000
	공원이용시안 전성	3.35(1.04)	3.51(0.89)	-1.419	305	0.157

들의 양(2.86, 2.64)의 경우도 각 시설별 수목의 만족도를 살펴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수목의 부족과 파고라/정자 등의 부족으로 대체적으로 불만족 사항으로 나타났으며, 도심소공원은 특히 공원면적(2.71)이 불만족 사항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심리적 만족도에서는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공원이 사색장소로의 적합성(2.72, 2.89)은 떨어졌고, 공원이용시 안전성(3.35, 3.51)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였으며, 공간의 혼잡성은 도심소공원(2.83)이 균린소공원(3.32)보다 혼잡하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대화장소로의 적합성에서는 균린소공원(3.48)이, 휴식장소로서의 이용은 도심소공원(3.93)쪽에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V. 결론

### 1. 역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활성화방안

역세권 내에 위치한 소공원과 지하철역과 연계된 역 인접 소공원의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개발은 각 지역의 주민 및 이용자가 친밀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녹지공간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주민의 공동생활의 장소로서 지역공동체에 대한 기여 및 도시민의 생활에 있어 도시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공간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역세권 내 위치한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서울시에서 계획되고 있는 소공원의 계획 및 설계 시 이용자 측면의 고려와 각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분석의 결과로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연구의 분석결과에 의하여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시설 및 설계적 측면과 이용행태적 측면 그리고 관리 및 운영적 측면에서 공원이용활성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 1)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설계개선

첫째, 인구학적 특성 분석에 있어서 균린소공원의 경우는 10~20대층과 60대층의 이용도 높았으므로 노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담소를 나눌 수 있는 파고라 및 정자시설에 대한 배치가 필요하다. 도심소공원은 상업 및 업무시설을 이용하는 10~20대의 젊은층의 이용률이 높았는데, 이를 위하여 세련된 디자인의 공원과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약속장소 및 휴게장소로 주로 사용되므로 의자/벤치 등 휴게시설의 충분한 확충이 필요하다. 또한,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각 연령별로 편중됨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여건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둘째, 역 인접 소공원의 입지여건상 대부분 간선도로변에 위치하여 소음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소음을 차단시켜줄 수 있는 시설로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이용자들의 만족도나 중요도가 높게 인식되고 있었던 벽천이나 분수 등의 수경요소를 도입하여 물소리를 이용하여 소음을 경감시키거나 수목 식재를 통해 수립 조성으로 소음을 경감시키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지역성이 반영된 시설에 대해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지역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공원이용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연신내역의 물빛공원의 경우, 설계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연신내 파빌제가 공원설계에서 지역성을 반영하기 위한 모티브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행사가 가능한 장소로 이용될 수 있어서, 공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었다. 즉, 지역 이미지의 형상화를 통한 환경시설물에 적용하여 지역의 상징성을 표현하고, 특성 있는 공원으로

새롭게 인식될 수 있는 공간을 조성 설계하여 이용자들에게 정체성을 인식시키고 활력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한 사례로서 이와 같은 지역성을 담은 물리적인 요소에 의한 설계방향은 지역의 문화적 가치향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균린·도심소공원 모두 접근성은 지하철역에 인접해 있다는 특성상 접근성 면에서 매우 만족하나, 공원면적의 협소에 따른 불만족 사항이 도출되었다. 소공원의 개념이 생활 속의 휴게공간이라는 취지에 더욱 부합되기 위해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및 부지규모 확대를 통해 정적 공간과 동적 공간을 구분하여 서로의 상충을 막으며, 파고라, 벤치, 녹음수 등 그늘을 만들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의 도입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섯째, 디자인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도심소공원의 경우 지하철 이용을 통한 공원이용이 높으므로 지하철 이용자들이라는 이용자 특성을 고려한 경쾌하고 동적인 디자인을 통한 이용자들의 위치 식별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필요하다.

### 2) 이용활성화를 위한 이용행태에 대한 고려

첫째, 관찰조사에서 공원의 면적이 협소한 관계로 균린·도심 소공원 모두 30분 이내의 단시간 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으나, 지역주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모임이나 휴식 및 산책 이외에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향후 지하철역 인접 소공원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거주지 특성에 따라 균린소공원은 유치거리내 거주자의 이용빈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쉽게 주거지에서의 접근할 수 있고 가족이나 이웃들 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할 것이며, 도심소공원은 불특정 다수의 이용 빈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이용권 측면에서 균린소공원과는 다르게 좀 더 넓은 이용권에서의 공원 활용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동시에 역 인접 소공원은 도심소공원일지라도 지하철역이라는 특성상 그 주변 생활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이용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므로 도심소공원과 균린소공원 모두 공원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차지적으로 공원을 다양하게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공원이용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리 및 제도개선

본 연구의 대상지 관찰 구청의 담당 공무원들과의 인터뷰 조사에 따르면 향후 공원의 조성방안으로 “신설되는 지하철 9호선이나 역 주변 자투리 녹지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어린이들과 노인의 이용을 고려한 시설의 도입과 함께 공원규모가 커져야 한다”, “야간에 우범화 될 우려가 있으므로 입지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 “쉴 수 있는 공간 및 편의시설의 도입이 우선

적이다”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결국 공원 입지의 중요성과 함께 공원이용자의 특성 고려가 공원의 활성화에 궁극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조건으로 여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원조성의 선형조건과 함께 더불어 고려되어져야 할 것은 공원조성 이후의 관리 및 운영문제일 것이다. 생활 속의 휴게공간으로서 소공원의 근본취지를 고려한다면, 공원의 실질적인 이용자인 주민들의 관리와 운영에의 참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주민이 차지적으로 공원이용을 도모하고 주민공동체 의식으로 공원을 가꾸어 간다면 균린소공원은 물론이고,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소공원 또한, 생활권 내의 공원으로서 익명성에 의한 부작용 방지,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도 공원이용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구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는 장치나 제도 마련이 필수적일 것이며, 주민이 직접적으로 소공원을 조성 및 관리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의 유대감 형성은 물론 공원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여겨진다.

도시공원법 개정(2005년 3월 31일)과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의 세분화된 분류 특징은 균린소공원은 위치적 특성, 도심소공원은 시설적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공원을 분류하고 있다. 즉, 생활권 공원 내 소공원의 유형을 공원의 설치위치 및 성격에 따라 균린소공원과 도심소공원으로 구분하였지만, 개념이나 유형별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유형별 개념 및 틀에 있어서 법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즉, 법 제도의 개선은 도시소공원의 질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도시소공원의 양적인 확충과 시설의 설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를 통한 소공원의 이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므로 관련법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안

본 연구의 한계점은 본 연구처럼 역 인접 소공원으로 국한되어 유형별 분류로서의 분석이 아닌, 도시 소공원의 전체적인 법제상에서 도입된 유형별 개념으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법적인 개념이나 유형별 개념이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어 전체적인 소공원에 대한 지역적 특성과 이용자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인 개념에서 기본적으로 지역적 위치성격이 소공원의 각 유형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도시 지역 내 소공원의 유형별로 지정 가능한 소공원의 적합지를 판별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의 내용은 점차 많은 연구들이 논의되어 지하철역 인접 소공원의 이용활성화에 반영되며, 향후 조성될 지하철 9호선 역 주변 환경개선의 일환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공원계획과 같은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져 시민들의 일상생

활 속에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의 양적 증대 및 공원 불균형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경관 향상에 도모하였으면 한다. 또한, 역세권내 위치한 역 인접 소공원의 유형별 이용 활성화는 대상지에 발생하는 행태가 설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나, 본 연구에서 나타난 행태 및 공원 환경적인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공원설계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나타났다.

- 주 1. 역세권은 유통공간과 적응공간이 일치하는 장소로서 Ride, Shopping, 만남, 휴식 등 모든 활동이 가장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의 핵(核), 박문호(1998)
  - 주 2. 서울시는 2000년부터 진행되어온 「물을 이용한 친수공간 조성 기본 및 계획」에서 지하철 역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활용한 역 주변친수공간 및 소공원설치계획을 2007년까지 10개소로 조성 계획하였다.
  - 주 3.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서울시의 메각과 임대 위주로 운영해온 시유지 자투리땅을 시민을 위한 휴식 녹지공간 조성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을 마당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서울시 정책에 의해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과 도시민의 공원이용을 확대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되었다.
  - 주 4. TOD(대중교통중심의 개발: Transit-Oriented Development): 절 높은 대중교통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이 주 통행수단이 될 수 있도록 입출신된 지역사회를 창출하여 자동차에 의존하는 이동을 감소시켜 삶의 질 향상을 꾀하는 개발방식. 안전혁 온 형태역 (2000)
  - 주 5. 김한도(1996) 도시공원 이미지와 이용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0-11쪽에서 재인용
  - 주 6.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에서의 소공원의 유형은 균린소공원은 도시형 균린소공원(기존 도시지역 내 시가지 혹은 신도시 주거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터, 나대지 또는 녹지대 등을 활용하여 지정·조성할 수 있다.)과 전원형 균린소공원(기존 도시지역 외곽지역 혹은 군 단위 지역에 조성되는 공원으로써 마을 보호수나 정자목과 같은 마을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소공원으로 지정·조성할 수 있다.)으로 분류하며, 도심소공원은 광장형 도심소공원(고층건물 주변의 자연공간으로서 휴식을 목적으로 하는 공원이며, 주로 간선도로변의 고층 건물 군 사이에 조성되는 것으로 시설 중심의 공원이다.)과 녹지형 도심소공원(도시지역 내 이용의 측면보다 녹지로서 보는 측면이 강조되는 소공원으로서 화초류 또는 보행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수경시설 위주로 조성되는 공원이다.)으로 분류하였다.

- 주 7. 용도배분비율의 분석의 범위는 소공원을 중심으로 설정하였다. 공원의 경우 이용자의 접근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이용자들과 대상지간의 거리, 즉 유치거리에 관계된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공원의 유치거리는 균린공원의 경우 균린주구를 기준으로 한 500~1,000m, 어린이 공원은 균린분구를 기준으로 한 250m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소공원의 유치거리에 대한 법적 근거는 현재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도시소공원은 이상의 유치거리에 대한 위계상 인보구를 기본단위로 하여 125m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시료되나 역 인접 소공원의 경우 지하철역이라는 특성상 보통의 소공원과는 더 넓은 유치거리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공원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현 균린분구를 기준으로 한 어린이 공원의 250m의 최소 기준과 125m를 함께 분석하였다.

주 8. 구파발역 은하인 폭포공원의 경우, 주변 용도배분비율의 분석에 있어서 주변 환경이 북한산과 연접되어 있어 주변용도 배분비율에 있어서 주거 및 상업 비율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분석을 제하였다.

주 9. 본 설문에서는 이용자의 거주지 특성에 따른 절의 응답식의 설문이므로 성별 및 연령 집단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사하지 않았다.

이용무현

1. 김성한(1998) 성남시 도시소공원 계획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김한도(1996) 도시공원 이미지와 이용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3. 박문호, 정석, 양진희(1996) 도시소공원의 확보 및 조성방안. 서울시정 개발연구원.
  4. 박상진(2005) 성남시 도시소공원의 계획적 특성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5. 백경무(2004) T.O.D이론을 이용한 개발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0(3): 139-149.
  6. 안전혁, 은영태 역(2000) 뉴 어바니즘 현장. 한울아카데미.
  7. 임희자(2002) 서울시 역세권 도시조직 분포유형별 역중심 생활권 형성을 위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8. S. S. Y. Lau, Giridhan, S. Ganesan(2005) Multiple and intensive land use: case studies in Hong Kong. Habitat International 29(3): 527-546.
  9. T. Nirarta Samadhi, Niwat Tantayanusorn(2006) Reinventing religious land as urban open space: The case of Kuang in Chiang Mai (Thailand). Habitat International 30(4): 886-901.

원 고 접 수 일:	2008년 6월 30일
실 사 일:	2008년 7월 24일(1차)
	2008년 8월 11일(2차)
계 재 확 정 일:	2008년 8월 14일
3인의 명석사법	